

2018년 6월 15일

csf@kiep.go.kr

제18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



- 2018년 6월 9~10일 중국 칭다오에서 18차 상하이협력기구(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; 이하 SCO)'가 개최됨.
 - 2017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인도, 파키스탄을 포함해 총 8개국이 참가하였으며,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외교·경제 정책을 반대하며 회원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'칭다오 선언문'을 채택함.
 - 회원국 이외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몽고 등 4개국이 옵저버(준회원국 자격)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이 특별 초청되어 주목을 받음.
 - 정상회의 이후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, 양자 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며 SCO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과시함.
- SCO 정상회의에서는 △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역내 경제 협력 구상 △이란 핵 합의 유지 △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△무역 편리화 △SCO개발은행 설립 및 발전기금 문제 △북미회담 지지 등에 대해 논의 후 공동 성명을 체결함.
 - (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역내 경제 협력 구상) 회원국들은 '미국의 제일주의·보호무역주의'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, 세계무역기구(WTO)의 규칙과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지지함.
 - (이란 핵 합의 유지)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을 비판하는 동시에, 유럽 각국과 경제교류를 유지하길 바라는 이란의 입장을 지지함.
 - (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)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 외교 방식으로만 해결해야 하며, 한반도 정세의 완화, 한반도 비핵화 촉진,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 평화 유지 구상을 지지함.

1 상하이협력기구(SCO)는 2001년 7월 14일 러시아, 중국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설립한 국제조직으로, 상호신뢰와 선린우호 강화, 정치·경제·과학·기술·문화·교육·자원·교통·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 촉진, 지역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함.

- (SCO 개발은행 설립 및 발전기금 문제) 중국은 SCO의 은행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해 300억 위안(약 5조원) 규모의 전문대출기관을 창설하고, 일대일로 구상과 연관된 회원국간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함.
- (북미회담 지지) 회원국들은 남북,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, 관련국들간의 대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함.

표 1.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주요 논의 사항

연도	주요 논의 사항	비고
2015년	· 상하이협력기구 2025 발전전략 · 중·러 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협력 논의	-
2016년	· 중국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 '실크로드경제벨트와 광명의 길 신경제정책 협력 계획' 발표	-
2017년	· 일대일로 협력 강화 · 인도와 파키스탄의 신규 회원국 가입 · 역내 무역과 투자 원활화 촉진	-
2018년	·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역내 경제 협력 구상 · 이란 핵 합의 유지 ·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·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척결 ·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· 무역 편리화 (통관, 검역 간편화) · SCO개발은행 설립 및 발전기금 문제 · 기타 : 환경보호, 수자원 지속 가능 발전 체계 구축 · 식량 안전 보장 등 · 북미회담 지지	· 중·러 양자회담을 통해, 러시아는 200억위안(한화 약 3조 4000억원) 규모의 중국 라오닝성 쉬다바오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 체결함. · 중·인도 양자회담을 통해, 중국 티베트와 인도를 가로지르는 야루짱부강(雅魯藏布江, 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) 수자원 정보 공유 및 쌀 수출 협약을 체결함. · 중국은 SCO 은행연합체 구축을 위해 300억위안 (약5조원) 규모의 전문 대출기관을 창설하고, 일대일로 구상과 연관된 회원국 간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강화를 약속함.

자료: 제 18차 상하이 협력기구 공동선언문(2018.6.10.)을 토대로 정리.

- 이번 SCO 정상회의는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지역 대국이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구 규모 및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, 일대일로 관련국들의 전략적 협력을 이루는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SCO는 안보 협력을 위한 기구로 창설 되었으나, 최근 경제·문화·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 분야를 넓혀 가고 있음.
-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G7 정상회의와 대조적으로 SCO의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며, CNN 등 외신들은 SCO 회원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.²
 - 다만, 일부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만큼 SCO가 지속적인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음.³
- SCO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이며, 중국은 일대일로의 추진에 필요한 회원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SCO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.
 -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은 정상회의 기간 중,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'우의훈장'⁴을 수여하고,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(Rosatom)과 라오닝성 쉬다바오 원자로 건설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함.

2 <http://money.cnn.com/2018/06/08/news/economy/quebec-qingdao-summits-explainer/index.html>

기사제목: G7은 잊어라, 정말 중요한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리고 있다 :SCO 회원국의 인구는 31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4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%로 늘어남. 또한 회원국 중 4개국이 핵보유 국가임. (출처: 시장조사기관 IHS 마켓)

3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8-06-10/china-russia-solidify-growing-eastern-bloc-as-trump-rattles-g-7>

4 우의훈장은중국 사회의 현대화와 세계 평화 수호에 기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8년 처음 만들어짐.

* 이번 원자로 사업은 당초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 계약을 체결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원전 업계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임.

- 우리 정부는 ‘한반도 신경제지도’ 구상 및 신북방 정책을 중국의 ‘일대일로’ 구상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이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다자안보, 경제협력 등을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. **CSF**

참고자료

상하이협력기구(SCO), 인민망, 신화망, CNN, Bloomberg 등

(작성자 : KIEP 중국경제실 중국팀 홍진희 전문연구원)